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현황과
추세분석 연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목 차

제목 차례

I. 들어가며	1
II. 우리나라 세대 갈등 수준	2
III. 세대 갈등 영향 요인	4
1. 가족 가치관 차이와 변화	4
2. 정치적 이념성향 차이와 변화	8
3.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차이와 변화	11
4. 세대 간 소통 수준	13
IV. 나가며	16
참고문헌 및 자료	19

표 목차

〈표 1〉 세대 갈등 추이(약간 심하다 + 매우 심하다)	4
〈표 2-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5
〈표 2-2〉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매우 그렇다)	6
〈표 2-3〉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매우 그렇다)	7
〈표 3-1〉 정치적 이념성향(매우 보수적 + 다소 보수적)	9
〈표 3-2〉 정치적 이념성향(매우 진보적 + 다소 진보적)	10
〈표 4-1〉 세대 내 사회이동가능성 인식(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	12
〈표 4-2〉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 인식(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	13
〈표 5〉 세대 간 소통 수준(전혀/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4

그림 목차

〈그림 1〉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 정도 변화 추이	3
〈그림 2-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6
〈그림 2-2〉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7
〈그림 2-3〉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8
〈그림 3〉 세대 간 소통 수준에 대한 응답 추이	15

국민통합과 세대 갈등

김수정(강남대학교)

I. 들어가며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세대 차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대별로 다르게 경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각 세대의 정체성, 생활양식, 가치관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이전 세대의 소멸과 새로운 세대의 탄생, 그리고 이들 세대 간 상호작용이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대 간 차이가 단순한 ‘다름’을 넘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사회문제이다. 세대와 관련된 쟁점의 폭과 깊이가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이 세대 간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다. ‘뜰딱충(뜰니를 딱딱거린다는 일부 노인들의 특징에서 유래)’과 ‘20대 개새끼론(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담론)’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갈등 현상은 사회적 연대의 약화를 불러오고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쳐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정부 정책 효율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세대 갈등의 문제는 앞으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와 빠르게 변하는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세대 간 단절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세대 갈등의 양상은 고령층과 젊은 층 사이의 문화적 인식 및 가치관 차이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 갈등은 ‘일자리’ ‘정년연장’ 등 고용 및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전쟁 국면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급격한 인구 연령구조의 변동은 우리 사회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롭고도 더 격화된 세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감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세대 갈등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에서 있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세대 갈등 수준을 살펴본다. 둘째, 이 같은 세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1) 가족관 중심의 가치관 차이와 변화, 2) 정치적 이념성향 차이와 변화, 3)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차이와 변화, 그리고 4)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와 변화 측면에서 진단한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세대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I. 우리나라 세대 갈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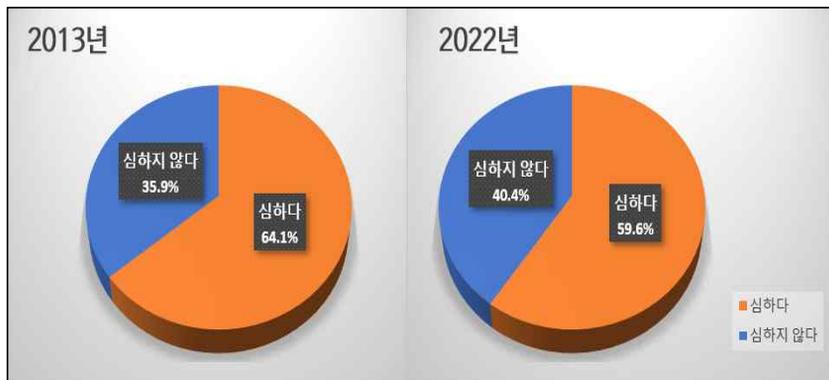
세대 갈등에 관한 조사는 꾸준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 세대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 여러 많은 조사들이 전반적인 사회 통합 및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혹은 고령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가 3년 주기로 수행하는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고,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에서 2013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고령층과 젊은 층’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다.

여기서는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의 세대 갈등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 69세 이하의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심하지 않다)부터 4(매우 심하다)까지 4단계로 응답을 받는다. 아래의 <그림 1>는 2013년과 2022년의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 정도를 비교한 것이고, <표 1>은 이 중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세대 갈등 인식 정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7점대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2.6점대로 소폭 감소했다. 응답률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고령층과 젊은 층 간의 갈등 정도에 대해 ‘심하다(약간 심하다+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전체 64.1%였던 것에서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전체 59.6%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로 보면 10년 간 비슷한 수준이지만,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보면 다소 완화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 이하의 응답자들이 60대 응답자들에 비해 세대 갈등 정도를 더욱 심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30대의 이러한 응답 경향이 두드러진다.

| 그림 1 | 세대 갈등 심각성 인식 정도 변화 추이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

| 표 1 | 세대 갈등 추이(약간 심하다 + 매우 심하다)

단위: 퍼센트(%) / 평균(점)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평균(점)
2013	61.9	66.4	64.9	62.0	65.3	64.1	2.76
2014	58.8	67.3	62.2	61.8	60.6	62.3	2.74
2015	63.3	67.2	67.3	62.6	64.3	65.1	2.77
2016	64.4	67.4	64.7	61.5	60.0	63.8	2.76
2017	63.0	62.8	64.0	61.4	59.6	62.3	2.73
2018	64.5	65.2	66.5	62.2	63.8	64.4	2.76
2019	64.1	67.4	62.9	64.2	61.8	64.1	2.76
2020	62.1	60.1	60.5	61.4	60.6	60.9	2.69
2021	57.9	65.4	59.8	60.4	59.9	60.5	2.69
2022	55.6	61.5	62.0	59.7	58.2	59.6	2.67

출처 :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

III. 세대 갈등 영향 요인

한국의 세대 문제를 진단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세대 갈등의 원인을 크게 ‘공통의 역사적 경험의 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정치적 이념 성향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의 부재’ 등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손병권·박경미·유성진·정한울, 2019). 이를 따라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 세대별 가족 가치관(가족관), 정치적 이념성향, 사회 이동가능성 인식, 그리고 세대 간 소통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점검한다. 네 가지 측면에서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세대 갈등 완화 및 세대 간 통합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 가치관 차이와 변화

결혼, 이혼, 그리고 자녀에 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가족 가치관(이하 가족관)

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 의식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다.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의 보수적 가치관과 탈(脫) 가부장제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2013-2022)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족 가치관이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차이와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아래의 <표 2-1>, <표 2-2>, <표 2-3>은 각각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세대별(연령대별) 응답률(%)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2013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62.2%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응답자가 85%의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고, 젊은 연령대로 갈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져 20대 응답들의 경우 가장 덜 동의(50%)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보수적인 결혼관은 이후 수행된 2016년, 2019년, 2022년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전체 응답률의 급격한 감소다. 결혼의 필수 여부를 묻는 물음에 대한 전체 동의 수준은 지난 10년 사이 무려 45.3%p나 감소했다(62.2%→16.9%). 세대 간 격차도 줄었다. 2013년 20대 응답자와 60대 이상 응답자의 응답률 차이는 약 35%에 달했으나(20대: 50.0%, 60대 이상 85.0%), 2022년 그 차이는 26.6%로 감소했다(20대: 7.0%, 60대 이상: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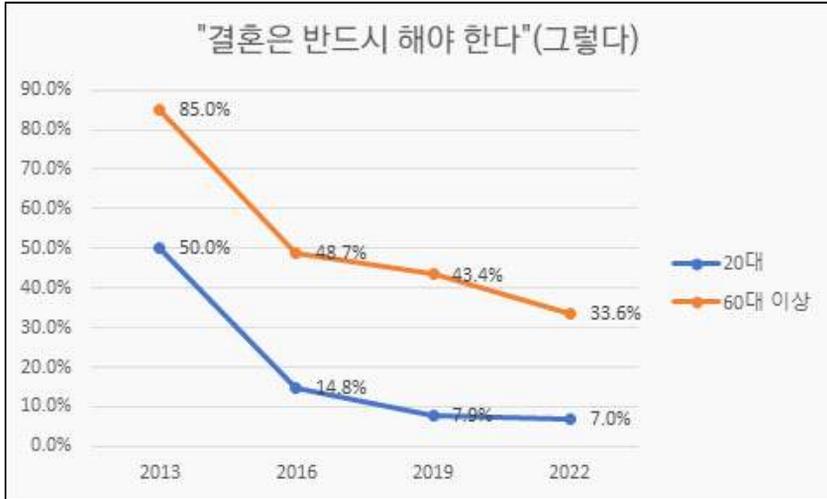
| 표 2-1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2013	50.0	52.7	59.3	65.0	85.0	62.2
2016	14.8	15.7	20.2	31.0	48.7	26.7
2019	7.9	12.8	14.4	19.8	43.4	21.1
2022	7.0	10.1	11.6	15.9	33.6	16.9

출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

| 그림 2-1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출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

이러한 경향은 이혼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 2-2>를 보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22.7%(2013년)에서 8.8%(2022년)로 급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에 관한 20대 응답자와 60대 이상 응답자의 응답률 차이 또한 2013년 약 35.1%(20대: 12.4%, 60대 이상: 47.5%)였던 것에서 2022년 약 13.1%(20대: 4.3%, 60대 이상: 17.4%)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세대 간 차이를 넘어 가족관을 둘러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게 해 준다.

| 표 2-2 |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매우 그렇다)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2013	12.4	13.7	17.4	23.6	47.5	22.7
2016	10.5	11.4	14.4	21.2	32.9	18.5
2019	4.6	5.7	7.0	10.1	20.9	10.4
2022	4.3	4.4	5.8	8.4	17.4	8.8

출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

| 그림 2-2 |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출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앞선 두 경우와 유사하다. 2013년 전체 41.0%를 차지했던 응답률은 2022년 15.3%로 떨어지며 매우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의 응답률 차이도 2013년 약 39.5%(20대: 23.2%, 60대 이상 62.7%)에서 10년 후인 2022년 약 24.8%(20대: 4.5%, 60대 이상 29.3%)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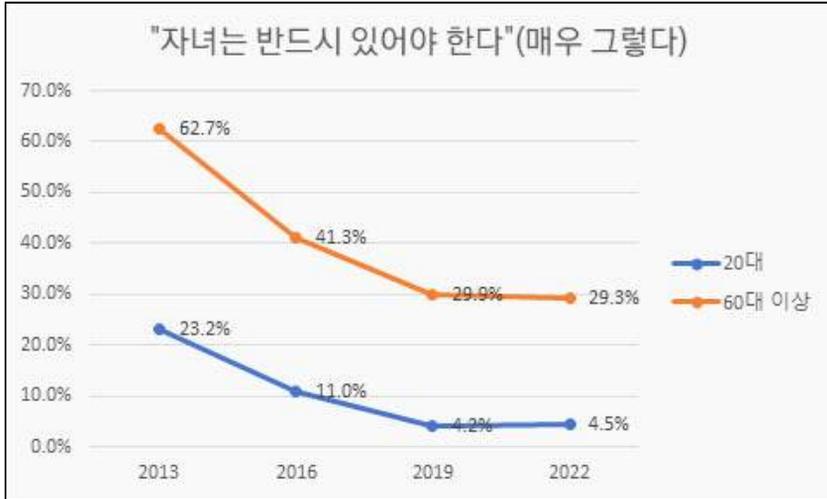
| 표 2-3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매우 그렇다)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2013	23.2	30.9	42.3	46.4	62.7	41.0
2016	11.0	17.2	23.7	27.7	41.3	24.9
2019	4.2	8.0	11.4	16.1	29.9	14.8
2022	4.5	8.4	12.4	17.7	29.3	15.3

출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

| 그림 2-3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출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06~2022)

이상의 결과들은 한편으로 가족관 측면에서 세대 간 격차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나 그에 따른 신(新) 유형의 가족관을 전 세대 공동체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로 바라보고, 또 이혼에 관대해지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극심한 세대 간 갈등을 야기했던 가족관은 세대 간 충돌의 장에서 이해의 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2. 정치적 이념성향 차이와 변화

세대 문제를 진단할 때, 각 세대의 정치적 이념 성향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이념 성향은 각 세대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 짓는데 영향을 준다.

각 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 정책, 특히 사회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각 세대가 지닌 정치적 이념 성향을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지난 10년간 한국의 세대별 정치적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고령층은 ‘보수’ 그리고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을 띠는 양자대결의 구도가 꾸준히 발견된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0대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매우 보수적 + 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 전체 31.0%에서 2022년 28.1%로 약 3%p 하락했다.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응답자 범주 모두에서 응답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40대와 50대 응답자의 응답비율이 약 14%p 감소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표 3-1 | 정치적 이념성향(매우 보수적 + 다소 보수적)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13	16.3	20.7	30.5	42.4	54.9	31.0
2014	18.1	19.6	28.6	43.9	49.8	30.6
2015	13.8	17.9	23.9	39.3	44.9	26.9
2016	11.8	14.3	23.2	37.2	50.5	26.2
2017	7.6	12.0	16.8	28.8	45.0	21.0
2018	10.5	9.8	15.3	29.9	44.3	21.2
2019	11.1	14.5	20.4	33.6	46.1	24.7
2020	5.7	8.2	16.7	29.0	50.7	25.7
2021	9.6	18.1	22.4	35.6	49.9	30.4
2022	9.4	11.4	16.1	28.9	52.6	28.1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

그러나 응답률의 하락 폭과 관계없이,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사실은 40대 이상의 젊은 층과 비교해 볼 때,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눈에 띄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매우 진보적 + 다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표 3-2>를 보면,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층,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연령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진보적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응답 비율이 각각 7.1%p(50대)와 4.2%p(60대) 늘어났지만, 그 응답률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 표 3-2 | 정치적 이념성향(매우 진보적 + 다소 진보적)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13	29.9	30.3	23.8	14.9	8.5	22.6
2014	30.3	28.8	24.5	15.0	9.0	22.5
2015	33.2	28.3	25.8	14.1	9.8	23.1
2016	39.0	34.6	27.2	17.6	7.6	26.1
2017	43.3	35.7	32.9	23.5	14.6	30.6
2018	36.4	40.0	36.6	23.9	18.0	31.4
2019	35.8	34.4	30.2	23.4	15.4	28.0
2020	36.5	38.3	31.6	23.0	14.2	26.8
2021	31.5	26.9	30.3	19.7	13.2	22.8
2022	32.2	31.5	27.7	22.0	12.7	23.3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

한국은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 간 갈등 정도가 매우 심한 국가이다. 개인의 정치 이념은 성별이나 출신지역, 학력 및 소득 등 여러 인구사회적 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연령 또는 세대와 관련한 정치 이념은 주로 연령 효과(aging effect)와 세대 효과(cohort effect)라는 경쟁하는 두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앞서 살펴본 조사 결과는 이 중 ‘연령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나이든 세대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

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나이드은 세대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통설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애착이 보수적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기성의 권위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대체로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적 위치가 안정화되면 보수화를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연령 효과’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한국은 정치이념에 있어서의 연령효과가 강한 사회, 즉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보수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젊은 층과 고령층의 정치이념이 극명하게 진보와 보수로 대립될 경우 충분히 큰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이념이 진보 혹은 보수화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세대 간에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각 세대가 왜 진보를 혹은 보수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상호 이해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이념 측면에서의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차이와 변화

공정한 사회, 그리고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인 사회이동성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이동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회이동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이동 가능성이 낮다면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세대 간 갈등으로 그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이, 나아가 내 자녀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부재한 심적 상태는 필연적으로 경제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이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세대별 차이는 어떨까?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지표 (2012~2022)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5.5%,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0.3%에 그친다. 한국인은 세대 내이든 세대 간이든 사회이동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세대 내 이동 가능성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표 4-1 |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11	31.1	25.7	26.7	29.4	31.9	28.8
2013	34.9	27.2	26.7	26.6	29.8	28.2
2015	28.0	20.1	19.3	21.3	23.8	21.8
2017	26.0	20.7	22.6	22.6	24.6	23.1
2019	27.7	21.6	22.7	21.9	23.9	23.1
2021	26.9	24.4	25.5	27.1	24.6	25.5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12~2022)

우리 국민의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11년 28.8%였던 것에서 10년 새 약 3.3%p 더 하락했다. 21.8%로 최저점을 찍었던 2015년도와 비교해 볼 때 약 3.7%p 오른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낮다. 하락 폭은 가장 젊은 층인 20대와 가장 고령층인 60대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이들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사이 긍정적 인식 응답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은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젊은 층과 가장 고령층이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표 4-2 |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매우 높다 + 비교적 높다)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11	40.1	38.4	40.4	42.4	44.9	41.7
2013	40.3	35.9	38.8	41.4	41.8	39.9
2015	31.3	26.7	30.0	31.3	33.5	31.0
2017	30.3	26.2	27.6	32.1	33.8	30.6
2019	30.0	24.8	28.0	28.9	32.6	29.4
2021	27.3	25.6	30.2	31.7	32.1	30.3

출처: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12~2022)」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하락 폭은 더욱 심각하다. 2011년 41.7%였던 전체 응답률은 2021년 30.3%로까지 크게 떨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약 10%p 이상 하락했고, 이는 앞서 세대 내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해 응답률 변화가 거의 없었던 30, 40, 50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목할만한 수치다. 세대 내이든, 세대 간이든 사회이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느끼는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 같은 주관적 감정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낮은 기대치,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는 비관적 인식,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는 심적 박탈감과 연관되며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수록 세대 집단은 하나의 계층으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세대 집단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세대 간 소통 수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대 간 소통의 문제다. 아래의 <표 5>를 보면, 세대 간 소통 수준에 대한 세대별 응답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각각의 세대 사이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수록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소통 수준의 저하는 이질적인 세대가 서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표 5 | 세대 간 소통 수준(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위: 퍼센트(%)

년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2013	56.3	49.4	44.7	39.8	44.7	47.0
2014	62.3	55.5	53.2	50.8	50.2	54.6
2015	57.2	55.7	50.9	50.5	54.3	53.5
2016	61.5	55.4	53.4	56.0	56.9	56.5
2017	67.2	63.6	57.4	62.7	61.2	62.4
2018	62.3	59.4	53.3	56.3	62.2	58.3
2019	64.1	64.0	58.6	58.9	60.9	61.1
2020	61.8	59.3	51.9	54.5	58.1	57.0
2021	59.7	60.1	53.8	56.7	61.7	58.7
2022	65.4	61.7	60.8	61.7	65.3	63.2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

표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시기 20, 30대 응답자들에게서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나이가 많은 세대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들이 중시하는 가치를 윗세대가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속도로 이루어진 정보화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일상생활과 온라인의 경계는 점차 흐려져왔고, 키오스크 등과 같은 전자매체 또한 일반화되게 되었다.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온라인과 전자기기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젊은 세대들과 나이든 세대의 가치관 차이를 분명하게 하여 서로 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림 3 | 세대 간 소통 수준에 대한 응답 추이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3~2022)

한편, 응답률의 ‘증가폭’은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참조). 2013년 기준 50대 응답자의 39.8%, 그리고 60대 이상의 응답자 가운데 44.7%가 세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61.7%(50대)에서 65.3%(60대 이상)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나이 든 세대의 가치관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험과 연륜으로 인해 나이가 어린 세대는 윗세대들에게 배울 점이 많았고, 사회적 시스템 또한 윗세대의 가치관에 맞게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에 순응하거나 이에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런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세대 간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 있다.

반면, 사회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일반화되면 이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과거 가치관은 오래된 것,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심화될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고령층 응답자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젊은 세대가 많아질 수 있다. 서로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 또한 심화될 여지가 많다.

또한 점차 일반화되는 온라인 매체와 각종 스마트 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이 든 세대가 많아질수록 젊은 세대와 이들 세대 간의 소통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 일반적인 SNS나 각종 메신저를 통한 소통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이든 세대는 이들과의 대화가 점차 어려워지거나, 이들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소통의 기회는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에 처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기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과제에 '고령층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V.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그 심각성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에 기반해 한국사회 세대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보고된 네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세대 갈등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 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해 본 결과, 한국의 젊은 층과 고령층은 가족관과 정치이념 측면에서 비록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서로 간 입장 차가 크게 나타났고, 경제적(사회이동) 측면에서는 모두가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 소통 수준 역시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의 물이해가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료와 내용들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대차이의 단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 갈등의 현주소를 보다 정치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해당 문제를 해소하여 세대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왜 30대가 세대갈등을 특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의 해결을 통해 세대갈등 완화 정책 대상과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세대 간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가 연령 효과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 효과 혹은 코호트 효과에 따른 것인지’를 밝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세대 간 소통 강화에 있어서도 단순히 ‘상호 교류’ 횟수를 늘린다는 식의 접근을 취하는 대신 젊은 층과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을 해소하고, 각 세대의 생애주기상 당면한 문제들 및 코호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수치로 존재하는 세대 간 ‘차이’ 혹은 ‘격차’가 실질적인 세대 갈등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차이와 격차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 가능한 것이라면, 세대 갈등은 보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차이의 정도를 곧 갈등의 정도로 등치시키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어떠한 갈등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세대 문제는 ‘세대’ 그 자체와 더불어 많은 부분 시대의 흐름에서 파생된

문제들과 엮어져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어떠한 맥락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실제 ‘갈등’으로 격화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셋째, 세대 갈등을 논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세대’ 구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많은 데이터들은 응답자들의 연령대를 10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끊어서 구분하거나, ‘젊은 층(청년층)’과 ‘고령층’ 혹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이분화해서 보고 있다. 그러나 세대 간 충돌과 갈등의 양상은 단지 젊은 층과 고령층 사이의 갈등으로만 수렴되지 않으며, 특정 세대가 청년기 경험한 주요 사건사고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다양하게 차별화된 가치관들의 충돌로 보다 복잡한 지형을 그리며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민주화 세대로 부르는 세대와 X세대라 부르는 세대 간의 충돌은 젊은 층과 고령층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세대 갈등 양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칼 만하임(K. Mannheim)이 주창한 ‘코호트’로서의 세대 구분을 활용한 조사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 갈등은 복잡한 원인과 다양한 현상이 교차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세대 갈등의 양상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세대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대 갈등 현상을 슬기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세대’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대신 계층과 젠더, 지역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른 축들을 함께 엮어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강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측면들과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까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때 보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손병권·박경미·유성진·정한울. 2019. “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분쟁해결연구』 17(2): 5-37.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12~202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